

鶴山 辛敦復의 「厚生錄」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Husaengrok* by Sin Don-bok, Haksan

朴文烈(Park, Moon-Year)*

◁ 목 차 ▷

| | |
|---------------------|--------------------|
| 1. 緒言 | 5. 「厚生錄」의 內容과 引用書目 |
| 2. 「厚生錄」의 版本과 書誌 | 5.1 「厚生錄」의 編次와 內容 |
| 2.1 한글本 「厚生錄」 | 5.2 「厚生錄」의 引用書目 |
| 2.2 漢文本 「厚生錄」 | 6. 「厚生錄」의 鑄字法 |
| 3. 知守齋와 「厚生錄」의 序文 | 6.1 俗法鑄字 |
| 3.1 知守齋의 生涯와 「知守齋集」 | 6.2 土鑄字法 |
| 3.2 知守齋의 「厚生錄」序文 | 6.3 中原土板 |
| 4. 「厚生錄」의 著者와 著作時期 | 6.4 近法木鑄字 |
| 4.1 「厚生錄」의 著者 辛敦復 | 7. 結 論 |
| 4.2 鶴山의 行歷과 著述 | <참고문헌> |
| 4.3 「厚生錄」의 著作時期 | |

< 초 록 >

본 研究는 「厚生錄」의 著者와 著作時期에 關하여 考察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재 「厚生錄」은 下卷 1冊만이 筆寫本으로 傳來되고 있다.
- (2) 知守齋 兪拓基(1691-1767)의 「知守齋集」 卷15에는 <厚生錄序>가 收錄되어 있다.
- (3) 「厚生錄」의 著者는 鶴山 辛敦復(1692-1779)이며, 著作時期는 늦어도 1760(英祖 36)년에서 1767(英祖 43)년 사이로 추정된다.
- (4) 「厚生錄」 下卷에는 都合 103題 395項目的 本文內容이 收錄되어 있으며, 引用된 書目은 58種이고 引用된 回數는 322회이다.
- (5) 「厚生錄」 下卷에 收錄된 各種 鑄字法은 活字印刷術의 研究에 크게 活用되고 있다.

要語: 厚生錄, 鶴山, 辛仲厚 辛敦復, 知守齋, 兪拓基, 鑄字法, 活字印刷術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parkmoon@cju.ac.kr)

접수일: 2009년 9월 1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8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4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Husaengrok* and its writer, Haksan Sin Don-bo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Only the second volume of the *Husaengrok* originally compiled into two volumes has been handed down as a manuscript.
- (2) The preface of the *Husaengrok* is contained on the 15th volume of the *Jisujaejip* by Jisujae Yu Cheok-gi(1691-1767).
- (3) The author of the *Husaengrok* is Haksan Sin Don-bok(1692-1779), and it is presumed to be published between 1760 and 1767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1760-1767) in the Joseon Dynasty.
- (4) The second volume of the *Husaengrok* consists of about 103 titles and 395 entries, and contains 58 books cited 322 times.
- (5) Various techniques of casting movable types included in the *Husaengrok* are applied to study the techniques of printing with movable types.

Key words: *Husaengrok*, Haksan, Sin Don-bok, Sin Jung-hu, Jisujae, Yu Cheok-gi, casting method, movable types printing

1. 緒言

「東國厚生錄」·「東國厚生新錄」·「厚生錄」¹⁾으로 題名된 利用厚生的·博物的인 日用的 傳統 綜合農書가 있다. 「厚生錄」은 원래 上·下 2卷 2冊本이었던 듯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上卷이 逸失된 下卷 1책뿐이다.

「厚生錄」에 收錄된 內容은 <種蔬>·<種藥>·<別種諸品>·<救荒(方)>·<饌膳>·<器用> 등에 관한 것이다. 「厚生錄」에는 朝鮮時代의 救荒書와 「厚生錄」 著述 當時의 慣行農法이었던 近法 또는 俗法이 많이 引用되고 있으며, 中國의 農書들도 빈번히 引用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引用되고 있는 것은 「四時纂要」와 神隱書 등이다. 「厚生錄」은 「山林經濟」 이후 朝鮮의 綜合 農業技術을 다룬 두 번째의 傳統的인 農書로 「增補山林經濟」가 나오기까지 약 50-60년간의 朝鮮의 慣行農法이 대부분 收錄되어 있다는 점에서 韓國의 農業技術史上 貴重한 資料로 評價²⁾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 「厚生錄」의 著者と 著作時期에 관한 자세한 記錄이나 研究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³⁾이다. 더욱이 「厚生錄」에 수록된 日用的 各種 利用厚生的 農業技術도 그러하거나와 정작으로는 各種 活字鑄造法에 관한 內容의 記述로 世上에 더 잘 알려져 있다. 「厚生錄」의 <器用篇>의 ‘鑄字’條에 收錄되어 있는 ‘俗法鑄字’條, ‘土鑄字’條, ‘中原土版’條, ‘近法木鑄字’條 등에는 각각 鐵活字, 土活字, 土版, 木活字 등의 製作과 관련된 技術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記述되어 있다.

故 金斗鍾(1896-1988) 教授의 「韓國古印刷技術史」와 千惠鳳(1926-) 教授의 「韓國典籍印刷史」 등의 各種 著述과 論述에는 「厚生錄」의 ‘土鑄’條와 ‘鐵鑄

-
- 1) 「厚生錄」과 관련된 題名으로는 「東國厚生錄」·「東國厚生新錄」·「厚生錄」 등 多樣하다. 本稿에서는 用語의 統一을 위하여 特別한 경우가 아닌 한 「厚生錄」으로 通稱하고자 한다.
 - 2) 金榮鎮, “18世紀 中葉의 綜合農書 「厚生錄」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研究』 第6卷 第2號 通卷 第21號(서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113-123.
 - 3) 鶴山 辛敦復의 生涯와 著述에 관하여는 拙稿 “鶴山 辛敦復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1輯(서울: 書誌學會, 2008.)>를 參看할 것.

字'條 등이 引用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著者未詳의 著述로 기록되어 왔다. 특히故 金斗鍾 教授는 東國厚生新錄의 '土鑄'條를 引用하고 그 尾註에서 "金然昌 所藏本の 本書는 著者未詳으로 되어 있으나 그 體制는 朴世堂(1629-1703)⁴⁾의 「牆經」과 비슷하다"⁵⁾고 評價하였다.

本稿는 知守齋 俞拓基(1691-1767)의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의 內容을 바탕으로 厚生錄의 著者와 著作時期 및 그 收錄의 內容에 關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2. 「厚生錄」의 版本과 書誌

「厚生錄」과 關連된 題名으로는 「東國厚生錄」·「東國厚生新錄」·「諺文厚生錄」·「日用厚生錄」·「厚生錄」 등이 있다. 國內의 個人·圖書館·研究機關·博物館 등에 현재까지 傳存하고 있는 厚生錄의 各種 版本과 書誌는 다음과 같다.

2.1 한글本 「厚生錄」

「厚生錄」과 關連된 한글本에는 「諺文厚生錄」과 「日用厚生錄」이 있다.

「諺文厚生錄」으로 題名된 版本으로는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의 筆寫本⁶⁾이 있으며, 「日用厚生錄」으로 題名된 版本으로는 韓國學中央研究院 藏

4) 朴世堂: 本貫은 潘南이고 字는 季肯이며, 號는 西溪·潛叟·西溪樵叟 등이다. 朝鮮 後期의 學者로 당시의 政局을 主導하던 老論系의 反對立場에서 朱子學을 批判하고 獨自의 見解를 主張하였다. 學風과 思想研究에서 벗어난 實事求是의 學問態度를 強調하였다. 저술로는 「西溪先生集」·「思辨錄」·「新註道德經」(1冊)·「南華經註解刪補」(6冊) 등과 農書인 「穡經」이 전해지고 있다.

5)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350.

6) 「諺文厚生錄」은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에 所藏되고 있는 筆寫本으로 본서의 書誌事項은 <諺文厚生錄, 全 /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

書閣所藏의 2종의 筆寫本⁷⁾이 있다.

그러나 「厚生錄」과 관련된 이들 3種의 筆寫本은 本 研究에서 考究하려는 「厚生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듯하다.

2.2 漢文本 「厚生錄」

본 研究의 「厚生錄」과 관련된 漢文本에는 「東國厚生錄」과 「東國厚生新錄」 및 「厚生錄」 등의 筆寫本이 있다.

2.2.1 「東國厚生新錄」과 「東國厚生錄」

「東國厚生錄」으로 題名된 版本은 金然昌 教授 所藏의 筆寫本⁸⁾이 있으며, 이 版本은 金然昌 教授의 紹介와 解題⁹⁾로 世상에 알려진 版本이다.

「東國厚生新錄」으로 題名된 版本으로는 故 金斗鍾 教授와 千惠鳳 教授가 目見한 單卷의 筆寫本이 있다. 金斗鍾 教授의 「韓國古印刷技術史」에는 「東國厚生新錄」의 「土鑄條¹⁰⁾가 引用되고 있는데 그 尾註에 “金然昌 所藏本의 本書

詳]. 不分卷1冊(41張); 24.6 × 17.1 cm. 言語: 國·漢文并用. 註記: 安春根藏書五의三>으로 記述되어 있다. 그러나 本書는 本 研究의 「厚生錄」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듯하여 研究의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7) 「日用厚生錄」은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되고 있는 2종의 筆寫本으로 그 중 하나의 書誌事項은 <日用厚生錄 / [編著者未詳].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同治1(1862). 1冊(10張); 35.3 × 22.5 cm.>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의 書誌事項은 <日用厚生錄 / 徐益輔(朝鮮) 輯. 筆寫本. [筆寫地未詳]: 彥陽政堂, 同治3(1864). 1冊(67張); 32.7 × 21.2 cm. 筆寫記: 同治三年甲子(1864)六月上澣達城後人壽山徐益輔輯 畢書于彥陽政堂. 內容: 處世金言·農家要覽·救急方. 註記: 再裝本이며 卷首가 落張되었음>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書籍들은 本 研究의 「厚生錄」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듯하여 研究의 對象에서 除外하였다.

8) 金然昌 教授 所藏 筆寫本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東國厚生錄 / [編著者未詳]. - 筆寫本. -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金然昌 所藏.

9) 金然昌, “東國厚生錄의 鑄字製造法,” 「考古美術」 第4卷 第7號 通卷 36號(서울: 韓國美術史學會, 1963), 419-420.

는 著者未詳으로 되어 있으나 그 體制는 朴世堂의 「牆經」과 비슷하다. 本書에 적혀있는 '土鑄'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原文을 引用하고 있다. 千惠鳳 교수의 「韓國典籍印刷史」와 「韓國書誌學」에도 「東國厚生新錄」의 '土鑄'條¹¹⁾와 '鐵鑄字'條¹²⁾가 引用되고 있다.

「厚生錄」의 書名과 관련하여 金然昌 教授는 「東國厚生錄」으로, 故 金斗鍾 教授와 千惠鳳 教授는 「東國厚生新錄」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이들 3인의 學者들이 目見한 「厚生錄」은 金然昌 教授 所藏의 동일한 「東國厚生錄」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故 金斗鍾 教授와 千惠鳳 教授가 金然昌 教授 所藏의 版本을 引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同一한 版本의 厚生錄을 원래의 소장자인 金然昌 教授는 「東國厚生錄」으로, 故 金斗鍾 教授와 千惠鳳 教授는 「東國厚生新錄」으로 書名을 달리하고 있다.

金然昌 教授의 所藏本을 目見하지 못한 淺學의 筆者로서는 그럴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3인의 先學 중 누군가에게 誤謬가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筆者의 見解로는 所藏者인 金然昌 教授가 著錄한 「東國厚生錄」이라는 書名이 정확한 것이리라 추정된다.

2.2.2 「厚生錄」

「厚生錄」으로 題名된 版本으로는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¹³⁾과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¹⁴⁾ 및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¹⁵⁾ 등 3종의 筆寫

10)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348, 350.

11) ①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324, 368.

②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503.

12) ①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358.

②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民音社, 1997), 248.

13)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厚生錄」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厚生錄 / 辛仲厚(朝鮮) 編. - 筆寫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1卷1冊(43張, 缺帙): 無界, 12行32字內外 註雙行, 無魚尾; 36.2 × 20.7 cm.

所藏: 卷下.

14)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厚生錄」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본이 있다.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筆寫本 「厚生錄」은 본래 上·下 2卷이었던 것이 下卷 1冊만이 傳來되고 있다. 도합 43張의 缺帙된 線裝本으로 第1張에는 “厚生錄卷之下目錄”으로 시작하여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目錄에 이어서 第2張부터 本文이 收錄되어 있다. 그러나 目錄에 記錄된 <諸說>과 <跋>은 本文에는 收錄되지 않고 있다.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 筆寫本 「厚生錄」도 본래 上·下 2卷이었던 것이 下卷 1冊만이 傳來되고 있다. 도합 55張의 缺帙된 線裝本으로 第1張에는 “厚生錄卷之下目錄”으로 시작하여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目錄에 이어서 第2張부터 本文이 收錄되어 있다. 이 版本도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과 마찬가지로 目錄에 記錄된 <諸說>과 <跋>은 本文에 收錄되지 않고 있다.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의 「厚生錄」도 본래 上·下 2卷이었던 것이 下卷 1冊만이 傳來되고 있는 것이다. 도합 82面의 缺帙된 線裝本으로 第1張에는 “厚生錄卷之下目錄”으로 시작하여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目錄에 이어서 第2張부터 本文이 收錄되어 있다. 이 版本도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과 마찬가지로 目錄에 記錄된 <諸說>과 <跋>은 本文에 收錄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 版本은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의 所藏書 目錄檢索에서 檢索되어 왔으나, 최근의 目錄檢索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削除되어 目錄檢索이 불가능하다.

厚生錄 / 辛仲厚(朝鮮) 編. - 筆寫本. -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1卷1冊(55張, 缺帙): 無界, 10行32字內外 註雙行, 無魚尾; 22.2 × 15.6 cm.
所藏: 卷下.

15)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厚生錄」의 書誌事項은 다음과 같다.

厚生錄 / [辛仲厚] 編. - 筆寫本. -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註記: 본래 上下 2卷으로 구성된 것이나 현존하고 있는 것은 82面의 下卷 1冊뿐임.

3. 知守齋와 「厚生錄」의 序文

知守齋 俞拓基(1691-1767)의 「知守齋集」에는 「厚生錄」과 관련된 <厚生錄序>가 수록되어 있다. 먼저 知守齋의 生涯와 「知守齋集」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知守齋의 生涯와 「知守齋集」

知守齋 俞拓基는 1691(肅宗 17)년에 漢城의 盤松坊에서 出生하여 1767(英祖 43)년에 77세를 一期로 漢城 明禮坊에서 卒逝한 朝鮮時代 後期の 文臣이며 學者이다. 그의 本貫은 杞溪이고 자는 展甫이며, 호는 知守齋 또는 漢陰이고 諡號는 文翼이다. 1741(肅宗 40)년 增廣文科에 及第하여 翰苑·三司를 거쳐 景宗朝에 王世弟 冊封奏請使의 書狀官으로 淸나라에 다녀¹⁶⁾왔으나, 辛壬土禍를 일으켜 執權한 少論들로부터 彈劾을 받고 流配¹⁷⁾¹⁸⁾되었다. 1725(英祖 元)년에 老論의 執權으로 大司諫으로 등용¹⁹⁾되어 戶曹判書·右議政을 역임하고, 領議政에 오르자 앞서 世子冊封 問題에 連坐되었던 金昌集(1648-1722)과 李頤命(1658-1722) 등을 復官²⁰⁾시키고 柳鳳輝(1659-1727)와 趙泰壽(1660-1723) 등의 罪를 再審할 것을 奏請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辭職하였다. 晩年에 李天輔(1698-1761)의 뒤를 이어 領議政에 다시 登用되었으나 致仕²¹⁾하고 耆老所로

16) 春秋館 編, 「景宗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景宗 1年 8月 25日(癸未)條. 以世弟冊封 將奏請燕中 以金昌集爲正使 陸趙泰億爲副使 俞拓基爲書狀官.

17) 春秋館 編, 「景宗實錄」. 影印本. 景宗 2年 6月 19日(壬申)條. 司諫鄭楷啓曰 … 請回還奏請副使尹陽來·書狀官俞拓基 極邊圍籬安置 從之.

18) 春秋館 編, 「景宗實錄」. 影印本. 景宗 2年 6月 20日(癸酉)條. 安置尹陽來甲山府·俞拓基東萊府.

19) 春秋館 編, 「英祖實錄」. 影印本. 英祖 1年 12月 11日(甲戌)條. 以俞拓基爲大司諫 ….

20) 春秋館 編, 「英祖實錄」. 影印本. 英祖 15年 11月 23日(丙寅)條. 右議政俞拓基 上筭 請伸聯筭大臣 金昌集·李頤命復其官 批曰 當面諭矣.

21) 春秋館 編, 「英祖實錄」. 影印本. 英祖 36年 1月 29日(乙亥)條.

들어갔다.

知守齋의 詩文集인 「知守齋集」²²⁾은 1878(高宗 15)년에 知守齋의 後孫 俞致益(1822-?)이 15卷 8冊으로 編次하여 活字本으로 刊行한 것이다. 卷首에는 金炳學(1821-1879)의 序文과 總目이 收錄되어 있고 各卷마다 目錄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李埈의 跋文과 俞致益의 識가 수록되어 있다.

卷1에는 84篇의 詩가 著作年度順으로 收錄되어 있는데, 輓詩가 비교적 많은 量인 23篇에 이르고 있다. 수록된 詩는 매우 적은 篇數이나 1711년경 지은 작품부터 卒逝年인 1767년 景福宮에서 英祖의 親蠶禮를 보고 지은 詩까지 高루 수록되어 있다. 卷2-5에는 100편의 疏筭와 8편의 書啓 및 22편의 議가 수록되어 있다. 卷6에는 4편의 箋과 3편의 應製文 그리고 31편의 祭文 및 1편의 哀辭가 수록되어 있으며, 卷7에는 59편의 書가 수록되어 있다.

卷8-12에는 8편의 神道碑銘과 21편의 墓碣 그리고 35편의 墓誌 및 14편의 墓表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9에 수록된 知守齋 自撰의 墓碣銘인 <溪陰老人自銘>과 卷11에 수록된 역시 知守齋 自撰의 墓誌銘인 <溪陰老人自識>는 주목을 요하는 문장으로 스스로의 行적을 自貶하는 의미로 銘旌이나 神主에 議政을 쓰지 말고 諡號나 碑石도 청하지 말며, 그저 短石에 스스로 지은 墓誌銘이나 새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卷13-14에는 知守齋의 妻祖인 寒竹堂 申鉞(1639-1725)과 父親의 行狀, 尹暉(1571-1644) · 李宜顯(1669-1745) · 朴師益(1675-1736) · 李光迪(1628-1717) · 金慶餘(1596-1653) · 尹陽來(1673-1751) · 閔百祥(1711-1761) · 洪受瀨(1640-1711) 등의 諡狀이 수록되어 있으며, 卷15에는 4편의 序와 1편의 記 그리고 17편의 題와 5편의 跋 및 4편의 雜著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厚生錄」과 관련하여 가장 關心을 끄는 것은 著述時期가 記錄되지 않은 <厚生錄序>이다.

領中樞府事俞拓基致仕 ….

22) 俞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全15卷.

위로는 奉仕하고 아래로는 養育을 해야 하나, 그것이 道가 아니면 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옛적에 나라가 隆盛할 때는 官府를 설치하여 이러한 일들을 督勵하고 賞罰을 내걸어 勸懲하였으나, 날로 淳朴함이 散亂해지고 風俗이 苟且해지면서 枝葉의인 營利를 追求하려는 무리들만 날로 더욱 極盛을 부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畊耨²⁹⁾에 勤勉하고 鷄豚³⁰⁾를 牧養하며 桑麻를 植藝하는 方法들은 점차로 衰微해지고 侈靡³¹⁾와 奇衰³²⁾한 風習들은 마치 물(水)이 더욱 깊어지듯 水旱霜螟³³⁾과 疫癘天札³⁴⁾ 등만 더하였을 뿐인 것이다. 무릇 荒蕪地를 開墾하려는 者들은 歲月이 가도 書籍이 斷絶되지 않을 것을 바라고, 百姓들은 어찌하든 病을 얻지 않고 또한 무엇으로든 人生이 즐겁고자 하는 것을 바랍이 아니겠는가! 그 風俗이 苟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法도 衰殘해지고 말았던 것이나, 간혹 비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者들도 대부분이 蒙昧하여 그 適切한 時期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辛 上舍³⁵⁾ 仲厚가 편찬한 「厚生錄」을 보니 먼저 涑水³⁶⁾家儀³⁷⁾와 昔賢³⁸⁾法言³⁹⁾ 등을 비롯하여, 또한 歷代 古今의 稼牧⁴⁰⁾과 種植⁴¹⁾ 등의 일을 採集하고 더불어 모든 園圃⁴²⁾의 治耕과 酒漿⁴³⁾의 製造에서부터 服食⁴⁴⁾과 器用⁴⁵⁾에 이르기까지, 거의 遺漏된 바 없이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한번만 開卷⁴⁶⁾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日用하는 道具들에 대하여 粲然히 考究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用心⁴⁷⁾이 매우 勤勉하였다고 할 것이다. 例컨대

- 29) 畊耨: 밭을 갈고 김을 메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農作을 지칭하는 것이다.
 30) 鷄豚: 닭과 돼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31) 侈靡: 지나친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32) 奇衰: 不正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3) 水旱霜螟: 水害·旱災·서리·해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사의 災害를 지칭하는 것이다.
 34) 疫癘天札: 疫病과 夭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無病長壽의 障礙를 지칭하는 것이다.
 35) 上舍: 成均館의 儒生 중에서 아직 과거에 들거나 벼슬하지 않은 幼學이 아닌 生員試와 進士試에 합격한 生員과 進士가 기숙하며 공부하는 곳을 上舍 혹은 上齋라 하였는데, 국가에서는 生員과 進士가 재목이 될 사람이라 하여 上舍에 있게 하였던 것이다.
 36) 涑水: 宋代 司馬光(1019-1086)의 號로 그가 찬한 「涑水奇聞」(16卷)이 있다.
 37) 「涑水家儀」: 宋代 司馬光(1019-1086)의 저서인 「家範」을 지칭하는 듯하다.
 38) 昔賢: 옛 先賢이라는 뜻이나, 漢代 揚雄을 지칭하는 듯하다.
 39) 「昔賢法言」: 漢代 揚雄(BC53-AD18)의 저서인 「揚子法言」을 지칭하는 듯하다.
 40) 稼牧: 稼事와 牧養을 의미하는 것이다.
 41) 種植: 種藝와 植藝를 의미하는 것이다.
 42) 園圃: 동산이나 밭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酒漿: 술과 음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44) 服食: 食餌의 服用을 의미하는 것이다.
 45) 器用: 도구나 기구 등의 所用을 의미하는 것이다.
 46) 開卷: 서적을 펼쳐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와 같은 사람은 終日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여 한 마리 굶뱅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없으니, 이書籍에서 얻은 知識을 통하여 自力으로 農圃⁴⁸⁾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너무 老衰하였다는 마지막 핑계만 찾을 뿐인 것이다.

바라건대 여러 사람들에게 이 書籍을 읽도록 하여, 興起시켜야 할 바를 앞다투어 勸勵하기만 한다면 장차 浮食者⁴⁹⁾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百姓들에게 物資가 繁阜⁵⁰⁾하여지도록 하는 데에는 물론, 나아가 風俗을 淳朴한 데로 되돌리고 士人들에게 禮를 興起시키는 데에 있어서도 그 幾微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내(俞拓基)가 기꺼이 序하는 바이다.⁵¹⁾

以上の「知守齋集」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에 의하면, 知守齋가 讀破한 「厚生錄」은 「東國厚生錄」·「東國厚生新錄」·「厚生錄」과 同一한 內容의 「厚生錄」임을 알 수 있으며 그 著者도 ‘辛仲厚’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知守齋는 현재 전래되지 않는 「厚生錄」, 上卷까지도 讀破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4. 「厚生錄」의 著者와 著作時期

知守齋의 「知守齋集」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에 의하면, 「厚生錄」

47) 用心: 마음 씀씀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48) 農圃: 農作을 의미하는 것이다.

49) 浮食者: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놀고먹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50) 繁阜: 繁盛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51) 俞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卷15. 序. ‘厚生錄序’條.

管子之言曰 積於不涸之倉者 務五穀也 藏於不竭之府者 養桑麻育六畜也 噫 是豈徒爲國所先 其亦有家者亦然 人生而上事下育 非是道 無以爲也 古昔盛時 設官而督之 懸賞罰以勸懲焉 及朴散而俗偷 趨未營利之徒日益盛 而勤畊耨牧鷄豚 植桑蓀麻之法 寢衰而微 侈靡奇衰之習 如水益深 加之水旱霜螟疫癘天札 凡所以爲菑者 歲不絕書 民安得不病 而又何以聊其生哉 由其俗偷而法衰也 間雖有有志者 亦多蒙昧而失其宜 今觀辛上舍仲厚所編厚生錄者 首之以涑水家儀昔賢法言 仍又歷採古今稼牧種植之事 與夫治園圃作酒漿以及服食器用 殆無所遺 一開卷 而生人日用之具 無不粲然可攷 其用心可謂勤矣 如余者 終日無事而食 深有愧於一蠹之喻 得是書 尙可以自力於農圃之役 而今老矣 末由也已 願以是示諸人 俾有所興起而競勸焉 則將見浮食者寡 而民物繁阜 推以至於俗返淳而士興於禮 亦可由是而幾也 余於是乎樂爲之引.

의 著者가 ‘辛仲厚’임을 알 수 있을 뿐, ‘仲厚’가 名인지 字인지도 알 수 없으며 「厚生錄」의 著作時期에 관하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形편이다.

4.1 「厚生錄」의 著者 辛敦復

「厚生錄」은 지금까지 著者未詳의 著作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厚生錄」의 著者와 관련하여 知守齋의 <厚生錄序>에는 “... 지금 辛 上舍 仲厚가 편찬한 「厚生錄」을 보니 ...”⁵²⁾라고 하여 「厚生錄」의 著者가 ‘辛仲厚’임을 밝히고 있다.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의 內容에 바탕하여 ‘仲厚’라는 이름으로 「靈山寧越辛氏大同譜」⁵³⁾를 비롯한 각종 文獻의 檢索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李匡呂(1720-1783)의 李參奉集⁵⁴⁾에 <申生(仲厚)墓誌銘>⁵⁵⁾이 收錄되어 있고 申大羽(1735-1809)의 「宛丘遺集」⁵⁶⁾에 <字說示諸弟(申仲厚)>⁵⁷⁾

52) 兪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卷15. 序. ‘厚生錄序’條.

... 今觀辛上舍仲厚所編厚生錄者 ...

53)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大田: 譜文出版社, 2000). 全15卷.

54) 李匡呂: 本貫은 全州(德泉君派)이고 1720(숙종 46)년에 出生하여 1783(정조 7)년에 死去하였으며, 字는 聖載이고 號는 月巖·七灘 등이었다. 「李參奉集」은 4卷 2冊의 木版本으로 1805(순조 5)년에 刊行되었다. 版心題는 李參奉集이고 上黑魚尾가 있으며, 行字數는 10行 20字이고 책의 크기는 22.7 × 15.6 cm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閣(奎4349)에 所藏되어 있으며, 「韓國文集叢刊」 第237冊에 收錄되어 있다.

55) 李匡呂 著, 「李參奉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05]). 卷3. 文. 申生墓誌銘條.

平山申大羽儀 父有弟 曰大翼 字仲厚 ...

56) 申大羽: 本貫은 平山이고 1735(영조 11)년에 出生하여 1809(순조 9)년에 死去하였으며, 字는 儀父이고 號는 宛丘였다. 「宛丘遺集」은 10卷 2冊의 木版本으로 1820(순조 20)년에 刊行되었다. 版心題는 宛丘遺集이고 上白魚尾가 있으며, 行字數는 9行 18字이고 책의 크기는 20.7 × 14.1 cm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閣(奎5637)에 所藏되어 있으며, 「韓國文集叢刊」 第251冊에 收錄되어 있다.

57) 申大羽 著, 緝·緯·絢 編校, 「宛丘遺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20]). 卷1. 雜著. 字說示諸弟條.

... 嚴周云風之積也不厚 則負大翼也無力 字翼曰仲厚 ...

와 <(申)仲厚行狀>⁵⁸⁾ 및 <(申)仲厚祭文>⁵⁹⁾ 등이 收錄되어 있으며, 또한 李令翊(1738-1780)의 「信齋集」⁶⁰⁾에는 <申仲厚哀辭>⁶¹⁾와 <申仲厚墓誌>⁶²⁾가 收錄되어 있고 李忠翊(1744-1816)의 「椒園遺藁」⁶³⁾에는 <申仲厚哀辭>⁶⁴⁾가 收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記錄에 나타나는 ‘申仲厚’는 1741(英祖 17, 辛酉)년에 出生하여 1762(英祖 38, 壬午)년에 卒去한 名이 ‘大翼’이고 字가 ‘仲厚’였다. 그는 才智와 德行이 뛰어나고 著述한 文章도 있었으나 不幸하게도 22세에 夭折하였으며, 順興 安宗의 女息과 結婚하였으나 後嗣가 없었던 人物이다. 따라서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에서 知守齋가 「厚生錄」의 著자로 밝힌 ‘辛仲厚’라

-
- 58) 申大羽 著, 繙·緝·絢 編校, 「宛丘遺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20]). 卷8. 行狀. 仲厚行狀條.
君諱大翼字仲厚 ….
 - 59) 申大羽 著, 繙·緝·絢 編校, 「宛丘遺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20]). 卷10. 祭文. 仲厚祭文條.
壬午四月十七日 將葬仲厚道藏之原 兄某不忍以悲苦辭相提 亦不忍乎不訣 ….
 - 60) 李令翊: 本貫은 全州(德泉君派)이고 1738(영조 14)년에 出生하여 1780(정조 4)년에 死去하였으며, 字는 幼公이고 號는 信齋·匏客 등이었다. 「信齋集」은 不分卷 2冊의 筆寫本으로 筆寫年代는 알 수 없다. 版心題와 魚尾는 없으며, 行字數는 11行 22字이고 책의 크기는 24.1 × 16.3 cm이다.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貴558)에 所藏되어 있으며, 「韓國文集叢刊」 第252冊에 收錄되어 있다.
 - 61) 李令翊 著, 「信齋集」.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冊2. 祭文·哀辭. 申仲厚哀辭條.
余與申子大羽儀父善 嘗道其仲弟仲厚之行曰 堅忍淵沈 凡所遇震遽困苦 能處以無事 素持病 傍人不知病者 在以君能忍也 ….
 - 62) 李令翊 著, 「信齋集」.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冊2. 墓誌表·行狀. 申仲厚墓誌條.
惟仲厚拙於俗 勵於古 幼孤崇病 病遂竟身 而不弛劬業 博有經子 ….
 - 63) 李忠翊(1744-1816)의 本貫은 全州(德泉君派)이고 1744(영조 20)년에 出生하여 1816(순조 16)년에 卒逝하였으며, 字는 虞臣이고 號는 椒園·水觀居士 등이었다. 「椒園遺藁」는 不分卷 2冊의 筆寫本으로 筆寫年度는 알 수 없다. 版心題와 魚尾는 없으며, 行字數는 10行 20字이고 책의 크기는 19.6 × 14.3 cm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閣(古3428-262)에 소장되어 있으며, 「韓國文集叢刊」 第255冊에 收錄되어 있다.
 - 64) 李忠翊 著, 「椒園遺藁」.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冊2. 文. 申仲厚哀辭條.
仲厚 姓申氏 名大翼 仲厚其字也 ….

는 人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靈山寧越辛氏大同譜」⁶⁵⁾를 검색한 결과, ‘辛仲厚’라는 人物은 收錄되어 있지 않으며 字가 ‘仲厚’인 ‘辛敦復’이라는 人物이 收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靈山寧越辛氏大同譜」에 나타나는 ‘辛敦復’은 字가 仲厚이고 號는 鶴山 또는 景軒이며, 1692(숙종 18, 임신)년에 에 출생하여 1779(正祖 3, 기해)년 5월 4일에 88세를 일기로 卒逝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에서 知守齋가 「厚生錄」의 저자로 밝힌 ‘辛仲厚’는 바로 ‘辛敦復’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知守齋가 <厚生錄序>에서 「厚生錄」의 著者를 ‘辛敦復’으로 記錄하지 않고 ‘辛仲厚’로 기록한 것은 當時의 慣例에 따라 名인 ‘敦復’으로 기록하지 않고 字인 ‘仲厚’로 記錄하였던 때문인 것이다.

「靈山寧越辛氏大同譜」에 나타나는 ‘辛敦復’의 家系는 다음과 같다.⁶⁶⁾

<表 1> 鶴山 辛敦復의 家系

辛鏡(始祖, 1) - 雲敏(2) - 永繼(3) - 夢森(4) - 覺繼(5) - 百鍊(6) - 喜(7) - 至和(8) - 蘊(9, 府院君派) - 仲碩(10) - 廉(11) - 熹(12) - 回(13) - 益調(14) - 爽(15) - 尹衡(16) - 輔商(17) - 應時(18) - 慶晉(19) - 喜業(20) - 暉(21) - 聖重(22) - 翊東(23) - 敦復(24) - 福寧(25) - 錫瑞(26) - 瀾(27) - 英集(28) - 近默(29) - 在式(30) - 彰善(31) - 暎承(32) - 宗鎬(33) ……

「靈山寧越辛氏大同譜」에 의하면, 辛敦復은 字가 仲厚이고 號는 鶴山 또는 景軒이다. 1692(肅宗 18, 임신)년에 에 출생하여 1779(正朝 3, 기해)년 5월 4일에 88세를 一期로 卒逝한 人物이며, 墓地는 開城府 馬沓村 案山坐에 있는 것으로 記錄⁶⁷⁾되어 있다.

65)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全15卷(大田: 譜文出版社, 2000).

66) 本 家系는 「靈山寧越辛氏大同譜」<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의 卷首, 卷7, 卷8에 收錄된 府院君公派譜를 整理한 것이다.

4.2 鶴山의 行歷과 著述

「厚生錄」의 著者인 鶴山 辛敦復⁶⁸⁾에 관하여는 「靈山寧越辛氏大同譜」에서도 대략적인 傳記事項 정도는 파악되나 보다 자세한 行歷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아마도 鶴山이 居官의 명예로움보다는 閑居를 통하여 著述과 仙道를 몸소 實踐하는 것을 더 選好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靈山寧越辛氏大同譜」⁶⁹⁾를 바탕으로 「朝鮮王朝實錄」⁷⁰⁾ 및 「承政院日記」⁷¹⁾ 등에 나타나는 鶴山의 行歷을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2> 鶴山 辛敦復의 行歷

| 年代 | 朝代 | 月日 | 年歲 | 內容 | 備考 |
|------|-------|-------|----|-----------|-----|
| 1692 | 肅宗 18 | 07 01 | 01 | 出生하다 | 72) |
| 1715 | 肅宗 41 | - - | 24 | 進士試에 합격하다 | 73) |
| 1735 | 英祖 11 | 11 22 | 44 | 上疏하다 | 74) |
| 1748 | 英祖 24 | 10 12 | 57 | 上疏하다 | 75) |
| 1752 | 英祖 28 | 08 02 | 61 | 上疏하다 | 76) |

67)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卷7, 419. '辛敦復'條.

68) 鶴山 辛敦復의 生涯와 著述에 관하여는 拙稿 “鶴山 辛敦復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41輯(서울: 書誌學會, 2008.)>를 參看할 것.

69)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7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7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72)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卷7, 419.

73)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卷7, 419.

7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11年 11月 22日(丁巳)條.
進士黃挺河等疏曰 伏以近者館學陳疏 而天心激惱 舉措失中 責罰荐降 … 其體此教 各修本業 附疏錄 … 進士辛敦復.

75)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24年 10月 12日(癸巳)條.
進士尹得觀·宋載萬·辛敦復 … 金聖礪等疏曰 伏以臣等即故贊成臣朴弼周之門徒也 …

7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28年 8月 2日(庚寅)條.

| | | | | | |
|------|-------|-------|----|----------------------|-----------|
| | | 08 03 | | 上疏하다 | 77) |
| 1756 | 英祖 32 | 02 02 | 65 | 上疏하다 | 78) |
| 1762 | 英祖 38 | 01 - | 71 | 宣陵參奉에 除授되다 | 79) |
| 1764 | 英祖 40 | 02 11 | 73 | 南都奉事에 除授되다 | 80) |
| | | 04 27 | | 奉事로서 定配되어 押送하게 하다 | 81) |
| | | 05 27 | | 罪人으로 拿來되다 | 82) |
| 1774 | 英祖 50 | 07 01 | 83 | 進士 回榜을 베풀도록 하다 | 83) |
| | | 07 10 | | 入侍하다 | 84) |
| | | 07 10 | | 小科 回榜으로 옷감과 食糧이 題給되다 | 85)86)87) |

進士金恒柱 … 辛敦復 … 安擇範書 伏以先正文正公臣宋時烈 文正公宋浚吉從享之請 內而館學諸生 外而八路多士 齊聲仰籲 祈蒙俞音者 三十年如一日矣.

- 7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28年 8月 3日(辛卯)條.
進士申光履 … 辛敦復 … 等書 伏以臣等於邸下代理之後 首陳兩先正從享之請 ….
- 78)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32年 2月 2日(庚子)條.
成均生員安宗喆 … 辛敦復 … 具允德等書曰 伏以臣等 ….
- 79)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38年 1月 16日(庚戌)條.
有政 吏批 行判書韓翼暮進 參判洪樂性進 參議徐命膺進 行都承旨蔡濟恭進 以邊致明爲 兵曹參議 … 辛敦復爲宣陵參奉.
- 80)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40年 2月 11日(癸巳)條.
李永中爲正言 李命龍爲工曹正郎 辛敦復爲南都奉事.
- 8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40年 4月 27日(戊申)條.
鄭運維 以義禁府言啓曰 餘部官員竝施徒配之典 當押送事 命下矣 … 奉事辛敦復, 江原道春川縣保安驛, 徒三年定配 … 而以傳教內辭意 具罪目 依例發遣府羅將 卽爲押送于各 其配所 何如 傳曰 允.
- 82)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40年 5月 27日(戊寅)條.
金華鎮 以義禁府言啓曰 … 江原道春川縣保安驛徒配罪人辛敦復 未及拿來罪人三水前 府使具世仁等放送事 疏決單子中 付標啓下矣 竝放送事 分付於各該道道臣之意 敢啓 傳 曰 知道.
- 83)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日(壬子)條.
上御德游堂 承旨率回甲進士受謝恩入侍時 … 命書傳教曰 鄭基安·李滄處 各虎皮一領 賜給 上曰 李滄同榜有存者乎 對曰 有辛敦復 而前爲蔭仕矣 命書傳教曰 因此今聞同榜辛 敦復尙存云 其豈異也 令該曹一體造給衣巾 其令明日謝恩 仍下教曰 吹笛手 令該曹木布 賞給 諸臣以次退出.
- 84)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0日(辛酉)條.
傳于李致中曰 進士辛敦復入侍.
- 8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英祖 50年 7月 10日(辛酉)條.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小科回榜人辛敦復命入侍 使地方官 衣資食物題給.
- 86)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0日(辛酉)條.
上御集慶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小科回榜人辛敦復 亦自海西 聞已入京矣 上

| | | | | | |
|------|-------|-------|----|----------------------|---------|
| | | 07 14 | | 同知에 除授되다 | 88) |
| | | 07 16 | | 謝恩하다 | 89) |
| | | 10 27 | | 進士 回榜宴이 베풀어지다 | 90) |
| 1775 | 英祖 51 | 08 03 | 84 | 回榜으로 加資되다 | 91) 92) |
| 1779 | 正祖 03 | 05 04 | 88 | 卒逝하다(墓: 開城府 馬沓村 安山坐) | 93) |

鶴山은 1692(肅宗 18, 임신)년에 父親 辛翊東(1660-1703)과 陽川 許氏 進士 雪峰 許烘의 딸을 어머니로 3男 1女の 次男으로 出生하였다.

1715(肅宗 41, 을미)년에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進士에 합격하여 官界에 발을 들여 놓았으나, 官運은 별로 좋지 못하였던 듯하다.

1762(英祖 38, 임오)년에 71세로 宣陵參奉에 除授되고 1764(英祖 40, 갑신)년에 73세로 南都奉事에 除授되었으나 동년(1762) 4월에 奉事로서 定配되어 押送되었다.

下教曰 辛敦復入侍 謝恩老人 同爲入侍 出榻教 上曰 敦復 以回榜服色 入侍 可也 … 弘履曰 辛敦復巾服 適置江郊 未及入來云矣.

- 87)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0日(辛酉)條.
上御集慶堂 … 命老人辛敦復 使其子弟扶入 上詢其年齒 命誦小科會試所作 敦復誦一句賦 命書傳教曰 昔甲午式年小科人 兩次見兩人 可謂異常 李滄孫察訪 故既命守令承傳 辛敦復子億寧 令銓曹 參奉承傳 監役中 待窠調用 此人八十 自鄉來 與在京者有異 令該曹 回糧題給 所經處 亦令題給 而下鄉後 令地方官 衣資食物題給事 自政院 今日下諭道臣 敦復先退 命診候.
- 88)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4日(乙丑)條.
兵曹判書閔百興進 … 辛敦復爲同知.
- 89)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7月 16日(丁卯)條.
上御集慶堂 藥房入診 詣臺臺臣·謝恩老人 同爲入侍時 … 同知辛敦復 … 以次進伏 … 晦曰 此時如此 故臣等欣幸矣 命辛敦復進前 上詢曰 加資爲何 晦曰 嘉善矣.
- 90) 承政院日記. 英祖 50年 10月 27日(丁未)條.
上御集慶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 年方八十六歲 進士回榜 而才有辛敦復前例 似當有一視之道故敢達 上曰 令該曹 一體舉行 可也.
- 91)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英祖 51年 8月 3日(戊寅)條.
有政 判書朴相德牌不進 參判李徽之進 參議趙瑗傳旨未下 右承旨崔台衡進 吏批啓曰 … 辛敦復 … 年八十加資.
- 92)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卷 7, 419, '辛敦復'條.
- 93)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大田: 譜文出版社, 2000) 卷 7, 419, '辛敦復'條.

1775(英祖 51, 을미)년에 回榜을 맞아 壽資憲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으며, 영조는 特命으로 音樂을 내려 隱巖의 白麓舊第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또 道臣에게 命하여 그가 居處하고 있던 白川(배천)의 시골집에서 잔치를 열어 주었을 정도였다.

한편, 鶴山의 著述로는 「厚生錄」 외에도 「鶴山閑言」⁹⁴⁾과 「左溪哀譚」⁹⁵⁾을

94) 辛敦復 著, 「鶴山閑言」, 筆寫本.([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光武-隆熙年間(1897-1910) 寫]).

「鶴山閑言」에는 <戊戌仲夏三淵翁入城> · <余嘗聞金承旨濟謙之言> · <農岩集出金時敏與諸友> · <有一友生嘗拜三淵> · <金沙川翰清> · <余考諸史傳帝王豪傑之生> · <余嘗見灣府記聞一書> · <凡前世圖讖秘錄多不知其所自出> · <元順帝至正九年己丑> · <漢之符亡用符讖> · <崇禎皇帝> · <中州本禮義之邦> · <世謂我國人物> · <宇文泰高歡真敵手> · <夫子曰> · <夫子不語怪力亂神> · <成廟朝時湖南興德縣化龍里有吳浚者> · <宣祖朝嶺南三嘉縣陸洞村有土人鄭玉良> · <李壘小字宗禧家李湖西全義縣> · <仁同土人趙陽來> · <許察訪(火+定)滄海公之從子> · <柳參判滄全昌尉胤子> · <聞冬至使朴文秀在玉河館時> · <吉貞女西關寧邊人> · <廉時道吏胥> · <光海時有薛生者> · <李澤堂少時多病> · <洪焦牙山大同村人> · <鄭北窓礪在楊州掛蘿洞> · <進士李光浩郎任判書堂之姑母夫> · <忠州進士金義之言> · <成虛白倪曾在玉署受由南敏其還> · <文有采尙州人> · <金世麻寧邊人> · <雲峰進士官權言> · <南越中廟朝人> · <徐花潭敬德雖以理學有盛名亦異人> · <仁廟朝有一僧遊行> · <太白山淨石寺後小菴中> · <余近得見康節數一冊> · <歲癸卯先祖文莊公延> · <蘭雪軒許氏以婦人富於辭藻> · <金處士聖沉歿十餘年> · <靈光有一蔡姓土人> · <車天輅字復元> · <崔簡易豈其始爲古文> · <韓濩嘗隨朝天使泃京時> · <鄭謙齋數字元伯> · <孟監使曹瑞愛山水> · <林將軍慶業奇節偉畧> · <唐文士作叫髯客傳> · <余見五代史> · <尹公忭 明廟朝文科> · <金副奕載海以學問知名> · <有民金姓人居在水平> · <水路朝天時有一名官克下价> · <田東屹全州邑內中人> · <延湯君李時白時之貯有奴名彥立者> · <光海時漢師> · <仁祖朝海西鳳山地有一武官姓李者> · <京中土人況姓者有奴婢漏> · <金貴奉者楊根南中面聖德村常民> · <崔慎華陽開見錄曰> · <燕薊風俗> · <洪濂學啓蒙於尤菴> · <尤菴集思津宋氏家傳> · <崔慎華陽開見錄有曰> · <星州文官鄭錫縑未第時> · <辛評事處衍白麓先生之猶子> · <己未冬我先世文集方刊> · <徐樂峰涪忌日子孫盡會> · <余與邊龍仁致周文甫> · <高靈府浣君申叔舟> · <朴尙書信圭爲嶺南伯> · <崔奉朝賀奎瑞既躋崇班經銓任後> · <陶山李相國年十餘歲適往留外家> · <安承旨圭嘗> · <尤菴童時卓犖尙氣> · <李相國濡仁厚長者在玉堂時> · <余亦有一異事> · <卓然拔華之人> · <鄭謙齋欲言> · <一士人粗解丹青> · <權變遂菴之從子> · <曾在光海時有一倅> · <固城人金生鼎臣言> · <有名江鐵者龍屬> · <庚申春咸陽倅趙徽> · <昔信州人有鵝二百餘隻> · <仁廟朝京師武弁李修已> · <輿地騰覽曰> · <我國祕境福地多> · <忠州木溪土人嘗以木道作洛> · <近世有鄭夏圭者以下筮得名> · <仁廟末朝釋鄭命壽> · <辛喜季號白厓> · <仙源金相國年三十餘表夫人葬

비롯하여 <海東傳道錄記文>⁹⁶⁾ 등도著述한 것으로 보인다. 鶴山閑言」은 鶴山이 일생동안 見聞한 100篇의 이야기가 수록된 일종의 文獻說話集으로 詩話·勸學·風水·孝子·義人·應報·道術·神鬼·神獸 등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歷史的 事件과 人物에 관련된 뒷이야기, 人物의 逸話와 繪畫에 관한 評價, 그리고 葬禮風俗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內容이 수록되어 있다.

左溪哀譚」은 光海朝부터 英祖朝까지 朝鮮時代 後期의 士大夫와 婦女 212명의 人物에 관한 逸話와 詩話 등을 수록한 逸話文獻集으로 특히 末尾의 <婦人事蹟>에는 많은 女性들의 先見之明·內助·才藝 등에 관한 逸話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逸話와 詩話 등이 餘他の 野談集이나 雜錄 등에 수록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人物과 歷史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 著述로 평가되고 있다.

<海東傳道錄記文>은 姜獻奎(1797-1860)가 1857(철종 8)년에 朝鮮의 丹學派에 유행하던 養生書를 叢集한 「參同契演說」에 수록된 丹學·仙道에 관한 記文이다.

4.3 「厚生錄」의 著作時期

「厚生錄」은 지금까지 著者未詳의 著作으로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著作의 時期에 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厚生錄」의 著作時期와 관련하여 知守齋의 <厚生錄序>에는 “... 예컨대 나와 같은 사람은 終日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여 한 마리 굶병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기 그지없으니, 이 書籍에서 얻은 知識을 통하여 自力으로 農圃의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은

於江都>·<潛谷金相國爲太學齋任時>·<金川映水坪是邑內> 등 100篇이 收錄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95) 辛敦復 著, 左溪哀譚.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3卷3冊.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96) 1857(哲宗 8)년에 姜獻奎(1797-1860)가 찬집한 道家 계열의 內丹學 叢書인 「參同契演說」의 말미에 수록된 <海東傳道錄>에 李植의 記文에 이어 鶴山의 記文도 수록되어 있다. <姜獻奎 編, 參同契演說.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哲宗 8(1857).>

너무 老衰하였다는 마지막 핑계만 찾을 뿐인 것이다 …”⁹⁷⁾고 기록하고 있다.

知守齋의 「知守齋集」 卷15에는 <厚生錄序>를 비롯한 序 4편, 記 1편, 題 17편, 跋 5편, 雜著 4편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몇 편의 文章은 著述時期가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 <厚生錄序>를 著作한 時期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厚生錄序>에 기록되어 있는 ‘老衰’라는 의미가 ‘致仕’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知守齋가 일체의 官職에서 致仕하고 奉朝賀가 되어 耆老所로 들어간 시기는 1760(英祖 36)년 정월이며 그가 卒逝한 時期는 1767(英祖 43)년 10월이다. 따라서 知守齋의 <厚生錄序>는 이 기간 동안에 著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60년은 鶴山이 69세, 知守齋가 70세가 되던 해이다. 그 뒤 知守齋는 1767(英祖 43)년에 享年 77세로 卒去하고 鶴山은 1779(정조 3)년에 享年 88세로 卒去하였다.

이와 같이 厚生錄 의 著作時期에 관하여는 그 어디에도 기술된 바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厚生錄 의 著作時期는 늦어도 知守齋의 致仕時期인 1760(英祖 36, 70세)년에서 知守齋의 卒逝時期인 1767(英祖 43)년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以前의 時期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5. 「厚生錄」의 內容과 引用書目

5.1 「厚生錄」의 編次와 內容

현재까지 厚生錄 은 下卷만 傳來되고 있어 上卷에 수록된 內容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知守齋의 <厚生錄序>에는 “… 지금 辛 上舍 仲厚가 편찬한 厚生錄 을 보니

97) 兪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卷15. 序. ‘厚生錄序’條.

… 如余者 終日無事而食 深有愧於一蠹之喻 得是書 尙可以自力於農圃之役 而今老矣.

먼저 涑水家儀와 昔賢法言 등을 비롯하여, 또한 歷代 古今의 稼牧과 種植 등의 일을 採集하고 더불어 모든 園囿의 治耕과 酒漿의 製造에서부터 服食과 器用에 이르기까지, 거의 遺漏된 바 없이 收錄되어 있는 것이다. 한번만 開卷을 하더라도 백성들이 日用하는 道具들에 대하여 粲然히 考究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니, 그 用心이 매우 勤勉하였다고 할 것이다 …”⁹⁸⁾고 기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과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의 編次를 目次와 原文內容으로 對照하여 版種別 收錄 篇數를 정리하여 <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3> 「厚生錄」 下卷의 編次와 版種別 收錄 篇數(目錄分) [本文分]

| 番號 | 淸州古印刷博本 | | | 延世大學校本 | | | 備考 |
|-----|---------|-----------|----|--------|-----------|----|----|
| | 篇名 | 細目名 | 項目 | 篇名 | 細目名 | 項目 | |
| 001 | 種蔬 | 種蔬 | 4 | 種蔬 | 種蔬 | 4 | |
| 002 | | 種茄瓠(附六菜) | 2 | | [種]茄瓠 | 2 | |
| 003 | | 種大葫[蘆] | 1 | | [種]大葫[胡蘆] | 1 | |
| 004 | | [種]茄子 | 4 | | [種]茄子 | 4 | |
| 005 | | [種]苦椒 | 2 | | [種]苦椒 | 2 | |
| 006 | | [種]葱韭(附)薤 | 7 | | [種]葱(韭附薤) | 7 | |
| 007 | | [種]蒿苳 | 1 | | [種]蒿苳 | 1 | |
| 008 | | [種]蘿菔[菘菜] | 5 | | [種]蘿菔 | 5 | |
| 009 | | [種]瓜 | 3 | | [種](青)瓜 | 3 | |
| 010 | | 種牒瓜 | 2 | | [種]牒瓜 | 2 | |
| 011 | | [種]冬瓜 | 3 | | [種]冬瓜 | 3 | |
| 012 | | [種]蒜 | 3 | | [種]蒜 | 3 | |
| 013 | | [種]薑 | 5 | | [種]薑 | 5 | |
| 014 | | [種]蔓菁(青) | 2 | | [種]蔓菁 | 2 | |
| 015 | | [種]芋 | 13 | | [種]芋 | 13 | |

98) 俞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卷15. 序. '厚生錄序'條.

… 今觀辛上舍仲厚所編厚生錄者 首之以涑水家儀昔賢法言 仍又歷採古今稼牧種植之事 與夫治園囿作酒漿 以及服食器用 殆無所遺 一開卷 而生人日用之具 無不粲然可攷 其用心可謂勤矣 ….

鶴山 辛敦復의 「厚生錄」에 관한 研究

| | | | | |
|-----|-----------|----|--------------|----|
| 016 | [種]瓠 | 3 | [種]匏 | 3 |
| 017 | [種]西瓜 | 2 | [種]西瓜 | 2 |
| 018 | [種]胡瓠 | 1 | [種]胡(瓠)[瓜] | 1 |
| 019 | 種芹 | 2 | [種]芹 | 2 |
| 020 | [種]葵 | 2 | [種]葵 | 2 |
| 021 | [種]菌 | 6 | [種]菌 | 6 |
| 022 | [種]羊蹄 | 2 | [種]羊蹄 | 2 |
| 023 | 種藥 | 2 | 種藥 | 2 |
| 024 | [種]地黃 | 8 | [種]地黃 | 8 |
| 025 | [種]天門冬 | 1 | [種]天門冬 | 1 |
| 026 | [種]枸杞 | 2 | [種]枸杞 | 2 |
| 027 | [種]甘菊 | 4 | [種]甘菊 | 4 |
| 028 | 種商陸 | 2 | [種]商陸 | 2 |
| 029 | [種]五味子 | 1 | [種]五味子 | 1 |
| 030 | [種]山藥 | 1 | [種]山藥 | 1 |
| 031 | [種]川芎 | 1 | [種]川芎 | 1 |
| 032 | [種]當歸 | 1 | [種]當歸 | 1 |
| 033 | [種]麥文(門)冬 | 2 | [種]麥門冬 | 2 |
| 034 | [種]蒼朮 | 1 | [種]蒼朮 | 1 |
| 035 | [種]諸藥 | 3 | [種]諸藥 | 3 |
| 036 | 別種(諸品) 種竹 | 7 | 別種(諸品) [種]種竹 | 7 |
| 037 | [種]蓮 | 5 | [種]蓮 | 5 |
| 038 | [種]烟茶 | 7 | [種]烟茶 | 7 |
| 039 | [種]紅花 | 2 | [種]紅花 | 2 |
| 040 | [種]藍 | 2 | [種]藍 | 2 |
| 041 | [種]靛 | 1 | [種]靛 | 1 |
| 042 | [種]蘇子 | 2 | [種]蘇子 | 2 |
| 043 | [種]芭蕉 | 1 | [種]芭蕉 | 1 |
| 044 | [種]菱[附鷄頭] | 5 | [種]菱[附鷄頭] | 5 |
| 045 | 種茱萸 | 1 | [種]茱萸 | 1 |
| 046 | [種]覆盆子 | 1 | [種]覆盆 | 1 |
| 047 | [種]蒼耳 | 2 | [種]蒼耳 | 2 |
| 048 | 牧養 | 3 | 牧養 | 3 |
| 049 | 養牛 | 21 | [養]牛 | 21 |
| 050 | [養]馬 | 26 | [養]馬 | 26 |
| 051 | [養]羊 | 7 | [養]羊 | 7 |
| 052 | [養]猪 | 7 | [養]猪 | 7 |
| 053 | [養]犬 | 7 | [養]犬 | 7 |
| 054 | [養]鷄 | 14 | [養]鷄 | 14 |

| | | | | |
|-----|-----------|----|-------------|----|
| 055 | 養鵝 | 3 | [養]鵝 | 3 |
| 056 | [養]鴨 | 6 | [養]鴨 | 6 |
| 057 | [養]魚 | 10 | [養]魚 | 10 |
| 058 | [養]蠶 | 24 | [養]蚕[蠶] | 24 |
| 059 | [養]蜂 | 5 | [養]蜂 | 5 |
| 060 | 救荒(方) 麻豆方 | 1 | 救荒(方) 麻豆[方] | 1 |
| 061 | 服白茯苓 | 1 | 服白茯苓[苓] | 1 |
| 062 | [服]梁粳(法) | 2 | [服]梁粳 | 2 |
| 063 | 服蠟 | 6 | 服蠟 | 6 |
| 064 | 芝麻仙方 | 2 | 芝麻仙方 | 2 |
| 065 | 取穀末法 | 1 | 取穀末法 | 1 |
| 066 | 服菁子 | 3 | 服菁子 | 3 |
| 067 | 服蒼朮 | 2 | 服蒼朮 | 2 |
| 068 | 服松葉 | 4 | 服松葉 | 4 |
| 069 | 服貫衆 | 2 | 服貫衆 | 2 |
| 070 | 辟穀諸方 辟穀諸方 | 8 | 辟穀諸方 辟穀諸方 | 8 |
| 071 | 吸日法 | 1 | 吸日法 | 1 |
| 072 | 嚙津[法] | 1 | 嚙津[法] | 1 |
| 073 | 不畏寒[法] | 1 | 不畏寒[法] | 1 |
| 074 | 貿易[法] | 7 | 貿易[法] | 7 |
| 075 | 饌膳(饌)法 造致 | 2 | 饌膳法 造致 | 2 |
| 076 | 造漿 | 2 | 造醬 | 2 |
| 077 | 肉醬 | 1 | 肉醬 | 1 |
| 078 | 白麵醬 | 1 | [白](麵)[麩]醬 | 1 |
| 079 | 大麥醬 | 1 | [大]麥(醬)[漿] | 1 |
| 080 | 清醬 | 5 | 清醬[漿] | 5 |
| 081 | 美醬[法] | 2 | 美醬[漿法] | 2 |
| 082 | 汴醬[法] | 1 | 汁漿[漿法] | 1 |
| 083 | 造醋[法] | 1 | 造醋[法] | 1 |
| 084 | 造油[法] | 1 | 造油[法] | 1 |
| 085 | 造酒[法] | 6 | 造酒[法] | 6 |
| 086 | 常饌 | 1 | 常饌 | 1 |
| 087 | 豆粥速成[法] | 1 | 豆粥[速成法] | 1 |
| 088 | 紫不托[法] | 1 | 紫不托[法] | 1 |
| 089 | 器用 車輿 | 3 | 器用 車輿 | 3 |
| 090 | 床榻 | 1 | 床榻 | 1 |
| 091 | 茵席 | 1 | 茵席 | 1 |
| 092 | 油囊 | 1 | 油囊 | 1 |
| 093 | 書灯 | 2 | 書燈 | 2 |

| | | | | | |
|----------|------|--------|------|-----|-----|
| 094 | 火爐 | 1 | 火爐 | 1 | |
| 095 | 造硯 | 1 | 造硯 | 1 | |
| 096 | 造墨 | 2 | 造墨 | 2 | |
| 097 | 松烟墨 | 3 | 松烟墨 | 3 | |
| 098 | 造筆 | 4 | 造筆 | 4 | |
| 099 | 鑄字 | 4 | 鑄字 | 4 | |
| 100 | 雜方 | 2 | 雜方 | 2 | |
| 101 | 生財 | 9 | 生財 | 9 | |
| 102 [附錄] | 附警語 | 3 | 附警語 | 3 | |
| 103 | 用財 | 17 | 用財 | 17 | |
| 104 | | [雜錄] | [雜錄] | 19 | |
| 105 | (諸說) | 0 | (諸說) | | 無著錄 |
| 106 (跋) | (跋) | 0 | (跋) | | 無著錄 |
| 合計 10 | 105 | 395 11 | 106 | 414 | |

이상에서 나타나는 바를 보면,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의 目錄에는 105題로 편차되어 있으나, 실제로 末尾의 <諸說>과 <跋文>의 本文內容은 收錄되지 않고 都合 103題 395項目의 本文內容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의 目錄에는 106題로 편차되어 있으나, 실제로 末尾의 <諸說>과 <跋文>의 本文內容은 收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雜錄」에 해당하는 19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雜錄」의 19항목은 本 筆寫本의 所藏者가 添錄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첨록된 「雜錄」부분을 제외한다면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에도 都合 103題 395項目의 本文內容만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厚生錄 의 下卷에 수록된 內容은 <種蔬>에는 가지·고추·무·상추·파·미나리·마늘·생강·배추·수박·오이·참외·동아 등 22종 75항목에 대한 栽培法이 수록되어 있고 <種藥>에는 地黃·枸杞·五味子·當歸·麥門冬·川芎 등 13종 29항목의 藥用作物에 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別種諸品>에는 대나무·연·담배·紅花·쪽 등 12종 36항목의 栽培法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牧養>에는 소·말·돼지·양·닭·거위·오리·물고기·누에·꿀벌 등에 대한 12종 133항목의 牧養法이 수록되어 있고 <救荒方>에는 麻豆方 등 10종 24항목의 救荒食에 대한 調製 및 利用法이 설명되어 있다.

또한 <辟穀諸方>에는 吸日法·不畏寒 등 5종 18항목의 諸方이 수록되어 있고 <饌膳(饌)法>에는 각종 장 담그기·식초 만들기·기름 만들기·술 빚기 등이 14종 26항목의 각종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器用>에는 造墨·造筆·雜方·生財 등 13종 34항목의 기타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附錄에는 <警語>와 <用財>에 2종 20항목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나, <諸說>과 <跋>의 原文內容은 수록되지 않고 있다.

知守齋의 <厚生錄序>에서 厚生錄의 收錄內容으로 거론되고 있는 ‘涑水家儀’·‘昔賢法言’·‘古今稼牧’·‘古今種植’·‘治園圃’·‘作酒漿製造’·‘服食’·‘器用’⁹⁹⁾ 등의 內容과 전래되고 있는 「厚生錄」 下卷의 收錄內容을 대비하였을 때, 傳來되지 않고 있는 「厚生錄」의 上卷에 수록되었을 내용들은 주로 ‘涑水家儀’와 ‘昔賢法言’ 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⁰⁰⁾

그것은 知守齋의 <厚生錄序>에서의 ‘古今稼牧’·‘古今種植’·‘治園圃’·‘作酒漿製造’·‘服食’·‘器用’ 등은 「厚生錄」 下卷에서 <種蔬>·<種藥>·<別種(諸品)>·<牧養>·<救荒(方)>·<辟穀諸方>·<饌膳(饌)法>·<器用> 등으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5.2 「厚生錄」의 引用書目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과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厚生錄」 下卷을 통하여 볼 때, 鶴山이 厚生錄을 著述하면서 引用한 引用文獻은 매우 多樣하고 彪大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厚生錄 下卷¹⁰¹⁾의 著述에 引用된 書目과 引用의 回數를 정리하여 <表>로

99) 俞拓基 著, 「知守齋集」, 全史字體本.([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78]). 卷15. 序. ‘厚生錄序’條.

… 今觀辛上舍仲厚所編厚生錄者 首之以涑水家儀昔賢法言 仍又歷採古今稼牧種植之事 與夫治園圃作酒漿 以及服食器用 殆無所遺 一開卷 而生人日用之具 無不粲然可攷 其用心可謂勤矣 ….

100) 이에 관하여는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101) 辛敦復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表 4> 「厚生錄」 下卷에 引用된 書目과 書目別 引用回數

| 號 | 引用書目 | 引用回數 | | | | 引用篇名 | 備考 |
|----|------|------|---|---|---|--|-----|
| | | 計 | 直 | 未 | 又 | | |
| 01 | 閣阜山 | 2 | 1 | | 1 | 種芋(1又1) | |
| 02 | 經 | 2 | 1 | 1 | | 養魚(1未1) | 養魚經 |
| 03 | 警民編 | 1 | 1 | | | 生財(1) | |
| 04 | 計然 | 1 | 1 | | | 貿易法(1) | 計然子 |
| 05 | 古方 | 1 | 1 | | | 種冬瓜(1) | |
| 06 | 郭元振 | 1 | 1 | | | 用財(1) | |
| 07 | 丘瓊山 | 3 | 3 | | | 車輿(1)·養馬(2) | |
| 08 | 歐陽公疏 | 1 | 1 | | | 貿易法(1) | |
| 09 | 救荒 | 10 | 2 | 6 | 2 | 辟穀諸方(未2又1)·服貫衆(未1又1)· 救荒方服松葉(1未3)·種蔓菁(1) | |
| 10 | 琦重 | 1 | 1 | | | 用財(1) | |
| 11 | 金履祥 | 1 | 1 | | | 生財(1) | |
| 12 | 論語 | 1 | 1 | | | 用財(1) | |
| 13 | 辟穀方 | 6 | 1 | 5 | | 麻豆方(1未1)·辟穀諸方(未4) | 農書 |
| 14 | 備荒論 | 1 | 1 | | | 種芋(1) | 農書 |
| 15 | 農桑通訣 | 4 | 2 | 2 | | 養豬(1未1)·種菌(1)·種蔬(未1) | |
| 16 | 大學 | 2 | 2 | | | 生財(1)·用財(1) | |
| 17 | 陶朱公 | 2 | 2 | | | 牧養(1)·貿易法(1) | |
| 18 | 東坡 | 10 | 6 | 3 | 1 | 不畏寒法(未1)·松烟墨(1又1)· 養鵝(1)·養羊(1)·嚙津法(未1)· 造筆(未1)·種芋(1)·種蒼耳(1)· 吸日法(1) | |
| 19 | 馬援 | 1 | 1 | | | 用財(1) | |
| 20 | 漫言 | 9 | 5 | | 4 | 車輿(1)·警語(1又1)·貿易法(1又2)· 生財(1又1)·用財(1) | |
| 21 | 茅良 | 1 | 1 | | | 生財(1) | |
| 22 | 墨經 | 2 | | 2 | | 松烟墨(未1)·造墨(未1) | |
| 23 | 閩錄 | 2 | 1 | 1 | | 養魚(1未1) | |
| 24 | 裴明禮 | 1 | 1 | | | 養蜂(1) | |
| 25 | 白圭 | 1 | 1 | | | 貿易法(1) | |
| 26 | 白香山 | 1 | 1 | | | 用財(1) | |
| 27 | 汜勝之 | 5 | 2 | 2 | 1 | 種芋(1又1)·種瓠(1未1又1) | |

| | | | | | | | |
|----|------|-----|----|----|---|--|--------|
| 28 | 范仲淹 | 1 | 1 | | 用財(1) | | |
| 29 | 范蠡 | 1 | 1 | | 用財(1) | | |
| 20 | 譜 | 1 | 1 | | 種芋(1) | 種芋譜 | |
| 31 | 本艸 | 7 | 3 | 4 | 服白茯苓(未1)·服梁粳法(未1)· 種枸杞(未1)·種覆盆子(1)· 種茱萸(未1)·種蓮(2) | 本艸綱目 | |
| 32 | 四時纂要 | 31 | 17 | 9 | 5 | 養蜂(1)·養蠶(4未6)·種茄子(1)· 種甘菊(1未1又2)·種薑(1)· 種瓜(1又1)·種菌(1又1)·種芹(1)· 種蘿菔(1)·種藍(1)·種蒜(1未1)· 種蔬(1)·種牒瓜(1)·種葱菲(1未1又1) | |
| 33 | 仙經 | 3 | 1 | 1 | 2 | 服蠟(1未2又1) | (增類)本草 |
| 34 | 仙方 | 8 | | 8 | | 服蒼朮(未2)·服青子(未3)· 芝馬仙方(未2)·取穀未法(未1) | |
| 35 | 宣谷任氏 | 1 | 1 | | | 生財(1) | |
| 36 | 福壽全書 | 1 | 1 | | | 用財(1) | |
| 37 | 壽養書 | 2 | 1 | | 1 | 種菌(1又1) | |
| 38 | 神隱 | 134 | 57 | 63 | 15 | 車輿(1)·大麥醬(未1)·牧養(1)· 美醬法(未2)·白麵醬(未1)·服梁粳 法(1)·書灯(1未1)·養犬(1未3)· 養鷄(1未2)·養馬(3未9又1)·養蜂(1)· 養鵝(1又1)·養鴨(1)·養鴨(1)·養羊 (1未2又3)·養牛(1未16又2)·養蠶 (4未7)·養猪(1)·養猪(1)·肉醬(1)· 紫不托法(1)·造硯(未1)·造漿(1未1)· 造醋法(1)·種茄子(1)·種茄瓠(1未1)· 種薑(1)·種枸杞(1)·種葵(1)·種蘿菔 (1未1)·種大葫(1)·種冬瓜(1)·種藍 (1)·種菱(1未4)·種蔓菁(1)·種麥文冬 (1未1)·種蒜(1)·種山藥(1)·種商陸 (1)·種西瓜(1)·種蔬(1)·種蘇子(1未 1)·種藥(1)·種蓮(1未1)·種五味子 (1)·種芋(1)·種靛(1)·種諸藥(1)· 種竹(1未5)·種地黃(2未1又又1)·種川 芎(1)·種天門冬(1)·種牒瓜(1)·種葱 菲(1未1又2)·種蒿芎(1)·種紅花(1又 1)·清醬(未1又4)·火爐(1) | |
| 39 | 吳起 | 2 | 1 | 1 | | 養馬(1未1) | |
| 40 | 王陽明 | 4 | 1 | 3 | | 豆粥速成法(未1)·造酒法(1未2) | |

| | | | | | | |
|----|------|-----|-----|-----|--|--|
| 41 | 元史 | 1 | 1 | | 養馬(1) | |
| 42 | 陸象山 | 1 | 1 | | 生財(1) | |
| 43 | 醫方 | 2 | 2 | | 種商陸(1) · 種地黃(1) | |
| 44 | 李士謙 | 1 | 1 | | 用財(1) | |
| 45 | 張詠 | 1 | 1 | | 種蔬(1) | 續資通綱 |
| 46 | 張元禎 | 1 | 1 | | 用財(1) | |
| 47 | 張八公 | 1 | 1 | | 用財(1) | |
| 48 | 濟民要術 | 5 | 3 | 2 | 養鷄(1) · 養鴨(1未2) · 種芋(1) | |
| 49 | 秦穆公 | 1 | 1 | | 養牛(1) | |
| 50 | 太史公 | 1 | 1 | | 用財(1) | |
| 51 | 便民圖 | 6 | 6 | | 養犬(1) · 養馬(1) · 養鴨(2) · 養魚(1) · 種芋(1) | |
| 52 | 馮公 | 1 | 1 | | 用財(1) | |
| 53 | 閑情錄 | 1 | 1 | | 養魚(1) | |
| 54 | 許眞君方 | 2 | 1 | 1 | 服蠟(1未1) | |
| 55 | 許衡 | 1 | 1 | | 警語(1) | |
| 56 | 玄扈先生 | 22 | 9 | 12 | 1 | 牧養(1) · 養鷄(1未6又1) · 養馬(2未3) · 養魚(1) · 養猪(1未2) · 種菌(1) · 種芋(1) · 種地黃(1未1) |
| 57 | 黃兼濟 | 1 | 1 | | 用財(1) | |
| 58 | 厚生訓纂 | 2 | 2 | | 生財(1) · 用財(1) | 法言 |
| 計 | | 322 | 163 | 126 | 33 | |

이상의 <表>를 통해서 볼 때, 「厚生錄」 下卷의 103題 395項目的 著述에 引用된 書目은 都合 58種에 이르며 引用된 回數는 322회¹⁰²⁾이다.

6. 「厚生錄」의 鑄字法

「厚生錄」 下卷의 <器用>篇의 ‘鑄字’條에는 ‘俗法鑄字’, ‘土鑄字’, ‘中原土版’, ‘近法木鑄字’ 등이 收錄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鐵活字, 土活字, 土版, 木活字 등의

102) 여기에서 395項目的 數値와 引用回數의 數値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引用文獻의 記錄이 없는 近法 67項目과 俗法 6項目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別稿로 다루고자 한다.

製作과 관련된 內容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記述되어 있어 朝鮮時代 末期의 活字 印刷術의 研究에 크게 이바지되는 資料들이다.

이를 翻譯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1 俗法鑄字

俗法の 鑄字는 陶土¹⁰³⁾를 精細¹⁰⁴⁾하게 하여 [잘 빗어서] 木板 위에 填鋪¹⁰⁵⁾하는데, [木]板의 四邊에는 한결같이 匡郭이 있도록 한다. 填鋪한 것이 均平¹⁰⁶⁾해지면 日中¹⁰⁷⁾에서 반쯤 乾燥되기를 기다린다. 薄紙¹⁰⁸⁾에 [주조하고 싶은] 임의로 大小[字]를 楷書로 쓴 후, 밀랍을 녹여 [木]板 위에 뒤집(覆·覆)어 붙이고 刻手로 하여금 陰刻¹⁰⁹⁾하게 한다. [음각이] 끝난 뒤에 비로소 鐵을 녹여 [그] 쇠물을 杓子¹¹⁰⁾로 떠서 [木]板 위로 부어 [음각된 곳으로] 흘러들어 平鋪¹¹¹⁾가 되도록 한다. 冷凝¹¹²⁾의 상태를 살핀 후에 [木]板 위에서 脫下¹¹³⁾시키면 이것이 바로 鐵鑄字인 것이다. 活字¹¹⁴⁾마다 잘라내어 鐵刷子¹¹⁵⁾로 箇箇를 精潔¹¹⁶⁾하게 마감한다.¹¹⁷⁾

103) 陶土: 질그릇을 만드는 찰흙으로 붉은색의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몸에 뼈가 없으면 주저앉듯이 찰흙은 뼈 같은 성분이 부족하여 1,200도가 넘으면 주저앉는다.

104) 精細: 잘고 곱게 잘 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05) 填鋪: 깔아서 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06) 均平: 고르고 평평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07) 日中: 午正 때, 한낮, 햇볕 속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108) 薄紙: 얇은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韓紙를 지칭하는 것이다.

109) 陰刻: 오목새김, 凹새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110) 杓子: 국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111) 平鋪: 평평하게 깔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2) 冷凝: 冷却되고 凝固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3) 脫下: 떼어내서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4) 字: 活字를 의미하는 것이다.

115) 鐵刷子: 철로 만든 솔을 의미하는 것이다.

116) 精潔: 깨끗하고 조촐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17) 辛敦復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鑄字’條. 俗法鑄字 取陶土 精細治之 填鋪木板上 而板四邊 皆有匡郭 填鋪既均平 曝之日中 待其半

6.2 土鑄字法

土鑄字法은 陶土를 精細¹¹⁸하게 하여 縝潤¹¹⁹한 것에 榆汁¹²⁰과 같은 종류의 水分을 섞은 것과 [모두] 함께 넣어 精細¹²¹하게 甑¹²²에서 甑¹²³ 빻아서 甑¹²⁴이 가지런히 甑¹²⁵있고 그 내부는 四面이 方正한 木板을 取得하여 그 내부에 眞油¹²⁶를 바른다. 처음[에 만들었던] 陶土로 穴中¹²⁷을 채워 樵¹²⁸로 매우 堅固하게 다지면 木板의 背面으로는 곧 陶土¹²⁹가 한결같이 벗겨져 나오는데, 그 형태는 마치 雙陸¹³⁰의 骰子¹³¹와 같다. 烈日¹³² 속에 두었다가 乾燥가 되면 唐紙에 「洪武正韻」의 字體를 써서 그 위에 뒤집어(覆·覆) [붙여]서 陽刻으로 刻한 후, 白蠟을 두껍게 발라 불 속에서 구워 내면 개개가 精好¹³³해진다. 統制使 李載恒이 黃州의 兵營에서 [從事하였을 적에] 磁器土¹³⁴와 같은 陶土를 求得했는데 극히 精好하였다. 여타 지역의 任所¹³⁵

乾 取薄紙 楷書大小隨意 鎔蠟塗之 覆[覆]着板上 令刻手爲陰刻 既訖 始鎔鐵 取汁用杓 灌之板上 務令平鋪 候冷凝合 脫下板上 則是爲鐵鑄字 每字剪出 用鐵刷子磨治 箇箇精潔

- 118) 精細: 잘고 곱게 잘 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19) 縝潤: 잘 섞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0) 榆汁: 느릅나무의 즙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塗料로도 사용되는 것이다.
 121) 精細: 잘고 곱게 잘 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22) 鐵丸: 쇠로 만든 구슬모양의 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쇠로 만든 주판알을 의미하는 것이다.
 123) 算算(板算): 籌板, 數板, 算盤이라고도 한다.
 124) 孔穴: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다.
 125) 烈鑿: 가지런히 甑¹²⁵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烈은 列의 오식인 듯하다.
 126) 眞油: 참기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芝麻油(脂麻油), 香油, 胡麻油라고도 한다.
 127) 穴中: 孔穴의 내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128) 樵: 樵 또는 달구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129) 土: 陶土를 의미하는 것이다.
 130) 雙陸(雙六): 주사위를 써서 말이 먼저 궁에 들어가기로 겨루는 놀이이다.
 131) 骰子: 정방형의 육면체로 된 장난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사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132) 烈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133) 精好: 精巧하고 좋음, 뛰어난게 좋음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134) 磁器土: 磁(瓷)器를 만드는 흙인 磁(瓷)土를 의미하는 것으로 陶土와는 다른 흙이다. 磁(瓷)土는 陶土와는 달리 1,200도 이하에서는 익지 않고 대체로 1,300도 이상에서 익는

에서는 土鑄字를 製作하는데 無用¹³⁶⁾하고 손수 書寫하여 구워낼 여가가 없었으므로, 將校 李道揆의 집(家)으로 가지고 가서 부탁하였다고 한다.¹³⁷⁾

6.3 中原土板

中原의 土板은 곧 햇볕에 말려서 半乾¹³⁸⁾되면 [韓]紙에 印字해야할 某字를 書寫하고 書紙¹³⁹⁾를 [蜜]蠟으로 뒤집(覆·覆)어 붙여서 方法대로 陽刻한다. [모든 것이] 끝나서 익으면 墨을 발라 印出하는데 1板으로 數百張을 인출할 수 있다. 많은 것은 數十板, 적은 것은 十餘板이 나열된다. 印[出]이 끝나면 [板]面 위의 刻字를 刪去¹⁴⁰⁾한다. 또 [다시] 앞서의 방법과 같이 [陽]刻하면 印出은 無限하다. 刪去한 흠은 또 [다시] 填板¹⁴¹⁾에 사용된다고 한다.¹⁴²⁾

6.4 近法木鑄字

다. 따라서 陶土로는 磁器(瓷器)를 만들 수 없다. 磁(瓷)土는 대개 돌가루로 되어 있다. 磁(瓷)土 중 高靈土를 가장 좋다고 하는 이유는 中國 江西省 高靈山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던 때문이다. 흔히 慶尙北道 高靈에서 나는 磁(瓷)土를 高靈土라 여기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135) 所: 任所를 지칭하는 것이다.

136) 無用: 쓸모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37) 辛敦復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鑄字’條. 土鑄字法 用陶土 精細瀝潤者 和水如榆汁之類 和合精細搗 既熟 先此取木板 烈鑿孔穴 如鐵丸筭板 而其中四面方正 塗真油於其中 始取陶土 填穴中 甚堅用椎 卽板背則 土皆脫出 形如雙陸骰子 置烈日中 既乾 以洪武正韻體 書於唐紙 覆(覆)其上 以陽刻刻之 厚塗白蠟 炙之火中 箇箇精好 李統制使載恒 在黃州兵營時 得陶土如磁器土而極精好 他地之所 無用作土鑄字 親書炙出未暇 持來付之 將校李道揆家云.

138) 半乾: 반쯤 건조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39) 書紙: 字本을 書寫한 韓紙를 지칭하는 것이다.

140) 刪去: 깎아서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1) 填板: 판을 메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2) 辛敦復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鑄字’條. 中原土板 則日炙半乾 取紙寫 得某字可印字 書紙塗蠟 覆陽刻如法 訖便漆墨印出 一板數百張 多者列數十板 少者十餘板 印既訖 刪去面上刻字 又刻如前法 印出無限 刪去之土 又治填板云

近來에 木活字를 만드는 방법은 烏桲木¹⁴³⁾과 墨柿木¹⁴⁴⁾ 및 梨樹¹⁴⁵⁾와 華陽木 등을 사용하여 刻成한다.¹⁴⁶⁾

7. 結 言

이상에서 知守齋 俞拓基(1691-1767)의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되어 있는 <厚生錄序>의 內容을 바탕으로 從來 著者と 著作時期가 未詳으로 알려져 오던 厚生錄 의 著者と 著作時期에 關하여 考究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 (1) 본래 上·下 2卷이던 「厚生錄」은 현재 下卷 1冊만이 傳來되고 있으며, 版本으로는 金然昌 教授 所藏本, 延世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 淸州 古印刷博物館 所藏本,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등의 筆寫本이 있다.
- (2) 知守齋 俞拓基의 「知守齋集」 卷15에 수록된 <厚生錄序>는 「厚生錄」의 序文이며, 그 著者가 ‘辛仲厚’임을 기록하고 있다.
- (3) 「厚生錄」은 지금까지 著者未詳의 著作으로 알려져 왔으나 「厚生錄」의 著者는 字가 ‘仲厚’이고 號는 ‘鶴山’ 또는 ‘景軒’인 辛敦復(1692-1779)이며, 그의 著述로는 厚生錄 외에도 「鶴山閑言 과 左溪哀譚」 및 <海東傳道錄記文> 등이 있다.
- (4) 「厚生錄」은 지금까지 著作時期 未詳으로 알려져 왔으나, 「厚生錄」의 著述時期는 늦어도 知守齋의 致仕時期인 1760(英祖 36)년에서 知守齋의 卒逝時期인 1767(英祖 43)년 사이였을 것이다.

143) 烏桲木: 검칙한 색의 감나무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문의 烏는 烏의 오자인 듯하다.

144) 墨柿木: 검칙한 색의 감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黑柿木이라고도 한다.

145) 梨樹: 배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146) 辛敦復 著, 「厚生錄」 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鑄字’條. 近法木鑄字 用烏桲木墨柿木及梨樹華陽木等 刻成.

- (5) 전래되는 「厚生錄」 下卷은 105題로 편차되었으나 末尾의 <諸說>과 <跋文>의 本文內容이 收錄되지 않아 실제로는 都合 103題 395項目의 本文內容이 수록되어 있다.
- (6) 知守齋의 <厚生錄序>로 판단할 때 傳來되지 않는 厚生錄」 上卷에 수록된 本文의 內容은 ‘涑水家儀’과 ‘昔賢法言’ 등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7) 「厚生錄」 下卷의 103題 395項目의 著述에 引用된 書目은 都合 58種에 이르며 引用된 回數는 322回이다.
- (8) 「厚生錄」 下卷의 ‘鑄字’條에는 ‘俗法鑄字’, ‘土鑄字’, ‘中原土板’, ‘近法木鑄字’ 등이 收錄되어 있어 活字印刷術의 研究에 크게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姜獻奎 編. 參同契演說.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哲宗 8(1857).
- 金斗鍾 著.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74.
- 金然昌. “東國厚生錄의 鑄字製造法.” 考古美術 第4卷 第7號 通卷 36號(서울: 韓國美術史學會, 1963), 419-420.
- 金榮鎮. “18世紀 中葉의 綜合農書 厚生錄 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研究 第6卷 第2號 通卷 第21號(서울: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3), 113-123.
- 金在華 編. 樊川漫錄.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 金淨 著. 「冲庵先生集」. 木版本. 報恩: 金基善家, 1922.
- 東國大學校 韓國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社, 1981.
- 承政院 編. 承政院日記.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申大羽 著. 申縉·申綽·申絢 編校, 宛丘遺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20].
- 辛敦復 著. 「左溪哀譚」.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國

立中央圖書館所藏本.

辛敦復 著. 左溪哀譚.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18世紀 後半, 1757年 以後]. 奎章閣所藏本.

辛敦復 著. 「左溪哀譚」.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光武-隆熙年間 (1897-1910) 寫]. 藏書閣所藏本.

辛敦復 著. 鶴山閑言: 抄略 . 複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辛敦復 著. 鶴山閑言: 抄略 . - 筆寫本. -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東京大學圖書館 阿川文庫所藏本(A90-834) 所藏

辛敦復 著. 鶴山閑言 .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光武-隆熙年間 (1897- 1910) 寫]. 藏書閣所藏本.

辛敦復 著, 김동욱 역, 國譯鶴山閑言. 서울: 보고사, 2006-2007. 2冊.

辛敦復 著, 厚生錄」卷下. 筆寫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延世大學校中央圖書館所藏本.

辛敦復 著, 厚生錄」卷下.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清州古印刷博物館所藏本.

靈山寧越辛氏大同譜編纂委員會 編. 「靈山寧越辛氏大同譜 . 大田: 譜文出版社, 2000.

俞拓基 著. 知守齋集 . 全史字體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高宗 15(1878)].

李匡呂 著. 李參奉集. 木版本. [刊行地未詳]: [刊行者未詳], [1805].

李圭景 編. 五洲衍文長箋散稿.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1959.

李令翊 著. 信齋集.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李忠翊 著. 椒園遺藁.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 서울: 汎友社, 1990.

千惠鳳. 韓國書誌學 . 서울: 民音社, 199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編著者未詳. 「野乘 .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光武-隆熙年間

(1897- 1910) 寫]. 30卷30冊. 藏書閣所藏本.

編著者未詳. 諺文厚生錄 .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藏書閣所藏本.

編著者未詳. 日用厚生錄 . 筆寫本. [筆寫地未詳]: [筆寫者未詳], 同治1(1862).

藏書閣所藏本.